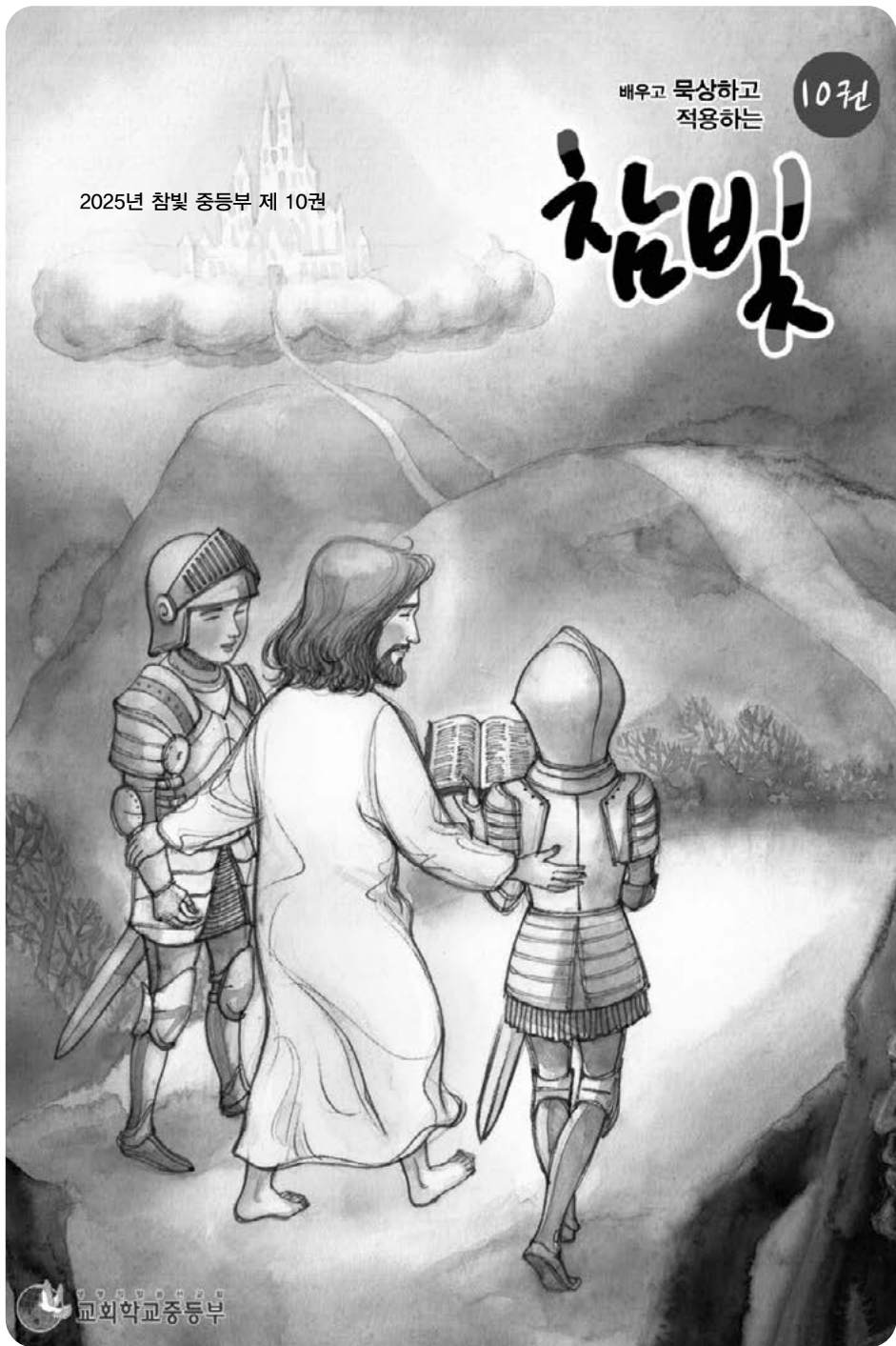


2025년 참빛 중등부 제 10권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10권

참빛



4

2025

월계획 MONTHLY PLAN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30

31

1

2

6

7

8

9

13

14

15

16

20

21

22

23

27

28

29

30

4월의 풋대 말씀을 적어 보세요.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메모 MEMO

3

4

5

10

11

12

17

18

19

24

25

26

1

2

3

5

2025 월계획 MONTHLY PLAN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27

28

29

30

4

5 어린이날
석탄일

6 대체 휴일

7

11

12

13

14

18

19

20

21

25

26

27

28

5월의 풋대 말씀을 적어 보세요.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메모 MEMO

1

2

3

8

9

10

15

16

17

22

23

24

29

30

31



2025
월계획 MONTHLY PLAN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1

2

3

4

8

9

10

11

15

16

17

18

22

23

24

25

29

30

1

2

6월의 풋대 말씀을 적어 보세요.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메모 MEMO

5

6 현충일

7

12

13

14

19

20

21

26

27

28

3

4

5

Table of Contents

영적 싸움

14	4월 6일	이방인의 제사와 우상의 제물	12
15	4월 13일	마귀와 귀신들	20
16	4월 20일	이단에 대하여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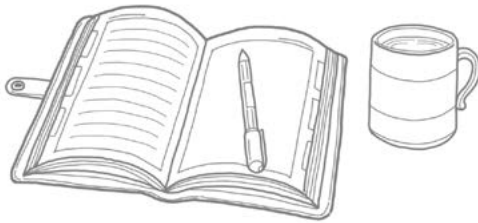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7	4월 27일	승리의 기도를 한 엘리야	38
18	5월 4일	이방 여인 이세벨	46
19	5월 11일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54
20	5월 18일	구원의 이적을 행한 엘리사	62
21	5월 25일	문둥병자 나아만의 순종	70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요 1:9)

성령충만한 복음의 일군들

22	6월 1일	순교자 스테반	80
23	6월 8일	복음을 전한 집사 빌립	88
24	6월 15일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화된 사울	96
25	6월 22일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104
26	6월 29일	말씀으로 양육된 디모데	112



발행처 영생의말씀사 기획 생명의말씀선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편집 문서선교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305번길 37(관양동) 연락처 070-7121-1280 문서선교부
홈페이지 www.jbch.org(생명의말씀선교회) school.jbch.org(교회학교)

<참빛>에 관한 좋은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교회학교 홈페이지 \(school.jbch.org\)](http://교회학교 홈페이지 (school.jbch.org)) → [공과](#) → [참빛 건의사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4

영적 싸움

이방인의 제사와 우상의 제물

고전 10:14~33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128장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오늘 배울



1. 그리스도인이 제사상에 절을 하거나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압니다.
2.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압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전 10:20)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고전 10:28~29)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을 이해하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사입니다.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제사상에 절을 하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그리스도인 이란 이유로 절을 안 하고 음식도 가려 먹으면 눈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너를 있게 한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 이냐?”라며 나무라고 핍박하거나 좋은 말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확실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처음부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 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는 조상의 영혼 대신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 귀신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나중에는 더 이상 강요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제사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안 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자극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실제적인 조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고전 10:21)

You cannot drink the cup of the Lord and the cup of demons; you cannot partake of the Lord's table and of the table of demons (1 Co 10:21)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주의 상(잔)과 귀신의 상(잔)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민속 명절에 지내는 조상에 대한 제사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에 대해 정리해 보고, 제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 적어봅시다.

제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제사에 대한 성경 구절	

- 2 지금까지 자신이 먹었던 제사 음식이 있다면 적어보고, 제사 음식 즉 우상의 제물을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내가 먹었던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고전 8:7, 10~13)	

3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라고 가족들이 강권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적어봅시다.

4 명절이나 제삿날은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하는 자리기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명절날이나 제삿날에 있어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봅시다.

전도 대상자	
구체적인 계획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06:28~2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의

마 10:32~3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화

행 15:2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

고전 8:4

↓

고전 8:9

↓

고전 10:28~29

↓

고전 10:31



사랑은 영혼을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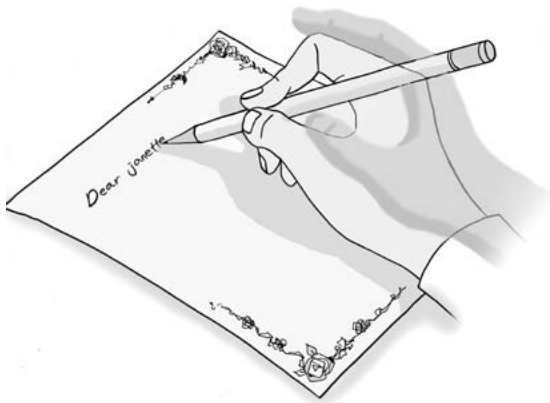
자네트라는 여인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해 온 자네트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평소 자네트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캐롤이라는 여인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가득 담겨 있는 편지를 계속해서 자네트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물론 자네트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은 2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고, 그 일로 자네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고 교제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네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롤과 같은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캐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하나님을 잘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말게 하옵시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에 더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7~8)



질문 있어요~



구원받은 친구가 교제 나가기도 싫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도 싫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먼저 그 친구와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낮가림이 심하면 교제에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교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친구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롬 14:1~3)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와 배려만이 한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상기합니다. 또한 친구가 교제 참석하지 않아 신앙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3~14)

지난 일은 뒤로 하고 친구의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확신을 갖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길 기도드립니다.